

주요개념 : 호스피스, 종교, 죽음

호스피스와 종교적 죽음이해

신민선* · 김문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한다. 당연히 출생 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생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언제 죽음이 들이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만 중에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고 태어나서 몇 달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 종종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문학이나 철학이나 종교에서 또는 일상에서 죽음을 말하던 죽음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그런데 오늘날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이어 건강관리의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등으로 평균수명이 신장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질환이 정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질환 중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암이다.

* 삼안양병원 원목실장, 안양과학대학 겸임교수

** 벨엘교회 목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 진단과 더불어 죽음을 연상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절망감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변화와 함께 많은 고통을 겪는다.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호스피스활동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호스피스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종교적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I. 본론

1. 호스피스의 정의

1) 호스피스 환자의 정의

호스피스 환자는 암이나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이나 항암요법 등 의학적 치료나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 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 호스피스 간호를 받기로 자청한 자를 의미하며, 호스피스 대상자는 더 이상 의료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와 그 가족과 친지를 포함한다. 즉, 호스피스의 대상자는 질병에 의한 결과이든 그렇지 않든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들이며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 포함한다(김수지,

2005 : 35).

2) 죽음인식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이해 및 죽음의 의미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된 다차원적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일정 대상, 생각, 상황에 대해서 갖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말한다(호스피스학술위원회, 2005년 제5권 제2호 : 76).

2. 말기환자의 특성

죽음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특수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임종자의 심리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간호가 필요할 것이다.

1) 로스(E. K. Ross)의 5단계

첫째단계는 부정(Denial)과 고립(Isolation)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설마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부정을 확인 받기 위해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재검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부는 뜻밖의 소식을 받은 뒤 완충작용을 하며 환자로 하여금 자신을 가다듬게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덜 강경한 방어 수단으로 환자 자신을 보호하는 완충물(Cushion)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김영임, 2004 : 26).

둘째단계는 분노(Anger)로서 병세가 점점 더 명확히 들어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분노와 사나움, 시샘과 원망의 감정이 일어난다. 자신은 불가피하게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노유자 외, 1994 : 87)

셋째단계는 타협(Bargaining)의 단계로 환자는 죽음을 모면할 길이 없음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불가피한 기정사실을 어떻게든 연기하려고 한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확실한 행동을 해보이고 특별한 헌신을 하기로 맹세함으로써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타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과 타협하는 것이다(노유자 외, 1994 : 89).

넷째단계는 우울(Depression)로서 회복의 가망이 없는 환자가 자기 병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될 때 외과적 치료와 입원을 계속해야 될 때, 증상이 더 뚜렷해지고 몸이 현저하게 쇠약해질 때, 본인은 더 이상 웃어넘기지 못하게 된다. 초연한 자세와 무감동, 분노와 걱정은 머지않아 극도의 실망감으로 바뀌며 심한 우울증에 빠진다. 이러한 우울증에 빠질 때 환자는 별로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환자는 자기와 같이 느끼고 슬퍼하며 자기 옆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노유자 외, 1994 : 90).

다섯째 단계는 수용(Acceptance)으로 환자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또한 앞서 기술한 과정을 거치면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는 자기 '운명'을 두고 분노하거나 우울하지 않는 다음단계에 들어간다. 그는 이전에 자기 심중을 거쳐 간 감정들을 털어놓을 여유가 생긴다. 산사람과 건강한 사람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이야기할 것이다. 머지않아 자기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정든 곳을 잃게 되리라고 한탄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볼 것이다. 환자는 대개 극도로 지치고 쇠약해지며 감정의 공백기를 가진다. 수용을 행복한 감정의 단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통이 지나가고 몸부림이 끝나면,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취하는 마지막 휴식'의 시간이 오는 것이다. 이 시기는 환자 못지 않게 가족이 도움과 격려를 필요로 한다. 임종환자는 임종의 평안과 수용의 단계로 들어감에 따라 그의 관심의 세계는 점점 좁아진다(노유자 외, 1994 : 91).

2) 린드만(E. Lindeman)의 3단계

첫째단계는 쇼크나 불신으로 상실의 수용에 대한 무능력 또는 상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이 특징되어진다.

둘째는 애痛的 단계로서 상실을 소용하는 것, 일상 생활에 대한 흥미의 상실, 눈물, 외로움, 불면증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단계에는 상실된 것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있다.

셋째단계는 슬픈 과정에서의 해결로써 점진적으로 일상생활로 나아가는 것이며, 상실한 자에 대한 이미지가 감소된다(김영임, 2004 : 29).

3) 불비(J. Bowlby)의 3가지 측면

첫째 측면은 '반항'으로서의 분노, 그리움, 부정과 눈물로 표현되며,

둘째 측면은 '혼란'으로서의 실의와 우울이 있고

셋째 측면은 '재정립'으로 상실한 것에 대한 애착을 끊으며,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기 시작한다(김영임, 2004 : 29).

죽음과 슬픔의 과정에는 많은 다른 개념들이 있다. 죽음의 단계나 슬픔의 여러 이론은 죽어 가는 환자나 이혼한 사람들, 사지 절단한 환자의 극복, 그리고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록 이론과 개념이 다른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고, 표면상으로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 상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공통의 느낌을 가지며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죽음과 슬픔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3가지의 커다란 범주로서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회피(avoidance)의 단계에는 쇼크, 부정, 불신이 있고, 대면(confrontation)의 단계에는 격한 감정의 단계로서 슬픔이 가장 극심하고, 상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긴박하게 느껴질 때이며, 재 회복(reestablishment)의 단계는 점차적으로 슬픔의 단계에서 일상적 삶의 세계로 되돌아가기 시작한다(노유자 외, 1994 : 92).

3. 죽음의 이해

1) 일반적인 죽음의 이해

(1) 의학적 죽음의 이해

죽음은 의학적으로 '순환 및 호흡의 정지'로 정의한다. 심장이 멎으면 혈액의 순환이 정지되고 혈압을 측정(觸知)할 수 없게 된다. 이때의 상태를 순환의 정지라 한다. 호흡의 정지란 자발적 호흡 운동이 정지될 때 조직에 산소공급이 끊어짐을 말한다. 인체는 호흡이 정지되면 잇달아 순환이 정지되고 순환이 먼저 정지되면 뒤이어 호흡이 정지된다. 순환과 호흡이 정지되면 산소와 모든 영양물질의 공급이 중단되므로 곧이어 조직세포에 변성을 일으켜 영구히 되돌아 올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태를 불가역적 사망(不可逆的

死亡, irreversible death) 혹은 생화학적 사망(生化學的 死亡, biological death)이라 한다. 생화학적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의 순환과 호흡의 정지를 임상적 사망(臨床的 死亡, clinical death)이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의사들의 심폐소생술로 죽은 환자를 소생시킬 수도 있다. 이때에 임상적 사망의 기간은 특별한 의학적 조치 없이는 3~5분의 짧은 시간이므로 심폐소생술은 초와 분을 다투며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생화학적 사망에 이른 후에는 현대 의학적 기술로는 소생시킬 수 없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사망을 선언한다.

흔히 화제가 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은 생화학적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임상적 사망의 범주 내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증언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최근 뇌사판정(腦死判定)으로 죽음을 인정하는 윤리적, 법적, 의학적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죽음에 이른 환자가 중추신경인 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다른 부분의 기능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뇌의 기능 없이는 자생(自生)할 수 없으므로 죽은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판정이다. 뇌사판정의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장기이식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법제화될 것으로 본다. 뇌가 완전히 사망하면 자의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는 뜻이다. 이때에 뇌는 생화학적 사망에 이르러 죽었지만 나머지 장기는 생화학적 사망에 이르기 전에 신장, 간, 심장, 폐 등의 중요 장기를 떼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장기이식술이다. 뇌사는 ① 모든 감각의 무반응 ② 호흡과 운동의 완전 정지 ③ 반사작용의 소실 ④ 뇌파의 완전 평탄 등의 네 가지 의학적 조건이 충족될 때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통 환자는 인공호흡기가 호흡을 유지하고 약물의 도움으로 심장만 겨우 뛰는 상태에 있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윤리적·의학적 논란은 접어 두기로 하고 의학적인 죽음을 다시 종합해보면 죽음이란 순환 및 호흡의 정지로 오는 조직세포의 불가역적 변성을 말한다(전재규, 2000 : 175-177).

(2) 심리학적 죽음의 이해

죽음에 대한 심리학의 이해에 있어서 대표적인 심리학자인 프로이트(S. Freud)는 “인간이나 동물에는 삶의 방향으로 충동을 일으키게끔 하는 삶의 본능(Eros)과 죽음의 성향을 가진 죽음의 본능(Thanatos)이 있는데 삶의 과정은 두 본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투쟁으로서, 즉 삶의 본능은 유기체로 하여금 식욕을 충족시키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자아가 일으키는 긴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죽음의 본능은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가 그로부터 표출되어 나온 생명이 없는 무생물의 상태로 인간 유기체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삶은 두 본능 사이의 투쟁인데 인간의 삶의 원초로부터 이미 죽음이 라는 것이 어떤 통일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무생물의 상태로 삶의 존재를 충동질하여 끌고 가므로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삶의 목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프로이트는 죽음은 최종적인 것이며 유기체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정우, 1995 : 18).

반면 융(K. G. Jung)은 인간의 출생이 의미가 있듯 죽음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는데, 인생은 어떤 궁극에로의 준비로 보통 인간은 인생의 상승기를 거쳐 정상에 이르면 거기에 멈추어 서는데, 즉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며 죽음은 자기실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김정우, 1995 : 18).

프롬(E. Fromm)은 인간에게는 삶을 사랑하는 인간형(biophilus)과 죽음을 사랑하는 인간형(necrophilus)이 있다고 하였다. 네크로피루스란 사체(死體)를 사랑한다는 의미로서 이 사람은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냉담하고 거리감이 있는 ‘법과 질서’에의 추종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과 여의 양극성의 것을 기초로 하여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것을 사랑하는데, 죽음을 사랑하는 자는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 준다고 한다. 또한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대상이든지 잃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으로 발전하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려 드는 현상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가정호, 1993 : 9).

실존심리학자 메이(R. May)는 죽음을 거절하는 댓

가는 막연한 불안이요, 자기 소외이며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의 죽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힌다(이상렬, 1989 : 23).

결론적으로 심리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견해는 인간은 스스로 유한성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죽음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며 생을 기한이 정해진 현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 못하게 되고 결국 동물처럼 죽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3) 철학적 죽음의 이해

철학자들에 의해서 죽음은 대체로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이고 회피적으로 죽음을 이해하였다. 죽음을 소극적으로 회피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완화 내지 극복하느냐 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문중현, 2003 : 7).

철학적 죽음 이해는 죽음의 공포에 대한 문제로 5가지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에피쿠로스(BC341-270)학파¹⁾의 주장으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괴로운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죽음 그 자체는 절대로 괴로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둘째는 에피쿠로스의 이론에 대립하였던 스토아 철학자들이다. 그들은 에피쿠로스의 이론보다 체념적이며 명상적인 죽음관을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스토아학파의 한사람인 세네카(Seneca)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면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셋째는 어거스틴의 견해로 생명의 권태와 동시에 죽음의 공포가 내 마음 안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다”고 말한다(김정우, 1995 : 91)

넷째는 볼테르(1694-1788)의 견해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다. 그는 “인간은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아는 유일한 종(種)

1) BC 351-270년에 생존했던 에피쿠로스와 그의 학파들은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이론은 "Death is nothing to us"로 요약되어 있다.

으로서 그들은 경험을 통하여 죽음을 인식 한다”고 말하였다.

다섯째는 실존주의 철학자들로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구체적인 삶”과 “지금 여기 이 사람”으로서 현존재 또는 실존에 관심을 기울인 실존철학은 죽음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죽음의 문제”를 이제 인간이 간단히 처리해 버린다거나 또는 피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 문제와 진지하게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간주하였다(황필호, 1990 : 264).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는 하이데거와 쾰르트르를 들 수 있다. 먼저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의 현존재(being there), 세계 내의 존재(being in the world)로서 죽음을 향한 존재(being toward death)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죽음은 무이며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기 때문에 불안의 대상이다. 반면 쾰르트르는 하이데거와 반대 입장에서 죽음을 말한다. 그의 죽음은 부조리한 것으로 표현한다. “죽음은 원칙적으로 내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출생과 똑같이 순전한 사실이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 부조리한 것처럼 죽는 것도 또한 부조리이다. 그 위에 우리는 항상 죽으러 가고 있다”고 말한다(문종현, 2003 : 8). 하이데거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면, 쾰르트르는 죽음을 피하려고 했다.

(4) 사회학적 죽음의 이해

사회는 살아있는 인간들로 구성된 조직체이지만 생명의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문화를 형성하며 또 전승하고 있다. 이는 사회 안에서 죽음이라는 현상을 통한 세대교체를 의미하며 유지되고 존속되며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이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특정한 개인의 죽음은 가족, 사회, 국가, 또는 세계를 단위로 하는 공동체에게 상실이나 위기,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 죽음이란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문제가기 때문이다(안춘욱, 2001 : 10).

사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죽음은 여러 유형을 띠며 나타나고 있다. 즉 수명을 다하고 죽는 자연사, 질병사, 자살, 불의에 사고로 죽는 사고사, 산업

사회의 희생물인 산업재해사, 타살 등이 있는가하면, 요즘 논란이 많은 안락사, 그리고 죽음을 규범과 도덕적 문제로 파악하여 전장에서의 죽음은 영웅적인 죽음으로 추앙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죽음은 극히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규범과 윤리는 문화가 지배한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 문화적 규범과 그 문화적 환경에서 학습하여 내면화한 가치관이 죽음을 규정하는 입장과 시각을 결정한다(배영기, 1992 : 437)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사회 현상과 더불어 그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태도, 특히 이미 숨진 사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부고, 장례식, 장례에 얽힌 풍속 등을 연구하여 한 사회가 가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접근하여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와 문화를 이해 하고자 하고 있다.

(5) 한국인의 죽음의 이해

흔히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유구한 역사를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철학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이야말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의 이른바 3교와 전통적으로 내려온 무교, 풍수지리설,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으로 사상적 측면에서 다양한 견해와 이해가 얽혀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문화사의 특징으로 한국 문화를 지배하는 종교가 시대를 따라 완전히 교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의 선사 시대에는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이 무대였고,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한민족을 지배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추방하고 유교가 전적으로 지배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죽음에 대한 이해가 시간과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고는 인간의 존재를 육신과 영혼의 결합으로 본다. 육신은 가시적인 유한한 존재이고, 영혼은 불가시적인 영원 존재인데, 육신은 영혼이 이승에서 거처하는 집이다. 따라서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삶이고,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난 상태가

죽음이 된다(최운식, 1997 : 85).

육신에서 영혼이 이탈하면 육신은 죽으며, 육신에서 영혼이 깃들어 있을 때에 육신은 살아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람의 존재 근원을 '영혼'이라고 본다. 이때 생령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고, 사령은 사람이 죽은 후에 사람의 육신을 벗어난 영혼을 말한다. 또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육신을 소거해 버리고 현실계로 가거나 비현실계로 가는데, 영혼은 불멸의 영원한 존재이므로, 재생하지 않으면 내세로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한국인의 영혼관은 생령(生靈)과 사령(死靈)으로 대별할 수 있는 것이다.

장수를 복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죽음은 한국 사상의 바탕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토속 신앙, 곧 무교가 있다. 고대 한국인의 신앙은 긴 역사적 전승 끝에 불리는 종교현상이다(유동식, 1978 : 84). 무교에서는 기복제와 구병제가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로 구성된 삶의 이념을 표현하는 반면, 사령제(邪靈祭)는 곧 죽음에 대한 이해를 표현한 것으로, 죽음이 한스러운 것이며, 죽음을 가져오는 것을 부정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한(限)을 품고 부정한 것을 씻음으로써 망령을 저승으로 보내자는 것이 사령제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은 죽음을 성스러움과 욕됨의 이중적 경향의 감정으로 바라본다. 무교에서는 삶의 세계를 이승으로, 죽음의 세계를 저승으로 생각하여 숨을 거두면 초혼(招魂)의식을 행하여 망인의 혼을 불러 되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자(死者)의 혼이 저승에 잘 도달했다고 믿었다(김태곤, 1981 : 55-60). 또한 호상(好喪)과 악상(惡喪)은 많은 자손에게 둘러싸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생전에 묘(墓)자리나,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장례예식도 호상의 경우 모든 장례예식을 시행하였으나, 요절(夭折), 피살, 자살 등의 경우에는 장례예식을 다 시행하지 않았다.

한국인의 죽음관은 현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려했던 채우지 못한 소망을 내세로 옮기고, 삶에서 용어리진 원한을 푸는 계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타부적, 회피적, 위장 적이며, 죽음을 현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며, 직시하지 않으려는 기피증이 있다(이정숙, 1980 : 10).

2) 종교적 죽음의 이해

(1) 무교의 죽음관

무교의 죽음관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교에서 행하는 의례인 굿이다. 굿 중에 굿굿이 무교의 죽음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굿굿을 하는 의미는 망자로 하여금 생전에 있던 모든 한을 풀어 버리고 자유롭게 저세상으로 떠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그러므로 무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제외해 놓고는 설립되지 않는다. 무교에서는 굿이라고 하는 종교행위로 모든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세중심의 종교로서 현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에게 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죽은 자의 영을 잘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고 살아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해가 없고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당의 주된 임무가 되는 것이다.

무교에서는 죽음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온전한 죽음과 그렇지 못한 죽음이다. 온전한 죽음을 죽었다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천수를 다한 죽음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자식을 온전히 길러 출가시키는 것, 즉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온전한 삶의 결말을 주어지는 것이 온전한 죽음인 것이다(김열규, 1986 : 34). 반면에 온전하지 못한 죽음을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된다.

무교는 영혼불사관(靈魂不死觀)을 지니고 있다. 죽음의 종교라고까지 말하여 질 수 있는 무교에서는 사람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관념이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은 사라지지 않고 원래의 근원인 카오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교에서의 장례는 굿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편안한 장소로, 즉 원래의 근원으로 잘 갈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맺힌 한을 풀어주어 깨어진 조화를 다시 회복시켜줌으로 남겨진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무교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의 속화(俗化)된 죽음, 물화(物化)된 죽음이 커다란 문제인데 이는 조화를 깨는 죽음들이기 때문이다(이원영, 2003 : 6-7).

(2) 불교의 죽음관

불교의 죽음관은 고대 인도의 죽음관으로써 불교에

있어서 죽음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즉, 기본적으로 윤회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이 윤회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윤회사상은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이다. 그렇기에 죽은 고인을 극락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 생각은 불교적인 사고가 아니다.

윤회사상대로라면 인간은 계속해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죽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해탈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기에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생관을 지닌 불교에 대해서 김경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교는 죽음이라는 실체를 인정하고서 어떻게 죽음이라는 실재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견지 않고 죽음이라는 실체와 실재를 동시에 부정해 버림으로써 죽음이란 없는 것이라고 깨달음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는 종교이다(김경재, 1996 : 26).

이러한 사생관은 서구의 삶과 죽음을 대립관계로 보는 사생관은 달리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사생관을 지니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空), 혹은 중도(中道)라고 한다. 불교 교리 상 죽은 영혼의 천도를 위해서 49제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이승과 저승의 중간시기가 있다고 믿는데 그 기간이 49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49제를 드리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이 재생을 위한 정화의 도구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한다. 모든 세속의 번뇌를 정화함으로 고인이 진정한 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화장을 한다(이원영, 2003 : 9).

(3) 유교의 죽음관

유교(儒敎)에 의하면 인간은 혼백(魂魄)-귀신(鬼神)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면 혼백·귀신을 포함한 인간의 삶과 죽음은 기(氣)의 취산(聚散)으로 해명되고 있다. 곧 인간은 기(氣)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氣)는 정(精)·기(氣)의 상태에 따라서 혼백(魂魄)이 되고, 취(聚)·산(散)·굴(屈)·신(伸)의 운동에 따라 생(生)·사(死)·귀(鬼)·신(神)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氣)는 우주의 기(氣)와 영속하는 것이요 처음과 끝이 없다. 영원한 자연의 일부인 것이다. 혼(魂)과 백(魄)이 모두 기(氣)요 혼(魂)과 귀(鬼)가 모두 신(神)인 것이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에 의하여 인간의 본질이 생성, 소멸한다거나 그 인간의 개체적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일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은자에 대한 제사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의리이며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의 의례이다. 죽음과 삶을 구별하는 것은 유교의 본래의 자리가 아니다(정진홍, 1992.4 : 91).

그러므로 유교의 죽음관은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생사여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속설인 귀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이치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질서를 강조하면서 그 이치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 영혼불멸에 대해서는 그 자손이 남아 있는 한 고인의 기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는 것이므로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불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치(理致)라고 하는 대 우주질서를 따르고 있기에 무교적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는 무교와 불교의 혼합된 유교장례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이원영, 2003 : 11~12).

(4) 기독교의 죽음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는데, 성경은 죽음을 죄로 인한 슬픈 결과(창2:17)로서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한다(사59:2).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한마디로 “분리”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 일관된 죽음에 관한 견해는 없고 시대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입장이 나타난다. 이제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위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① 구약성서에 나타난 죽음이해

구약시대에 몇 단계에 걸쳐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만(박노권, 1999 : 298~299),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죽음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나타난다(창2:17, 3:19). 이는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죽음 그 자체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죽음의 보편성과 아울러 죽음과 연관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다. 죽음은 각 사람에게 닥칠 어떤 것으로 모든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가 되며, 인류의 공통된 숙명인 동시에 온 세상이 가야할 길이다(왕상2:2, 삼하14:4). 인간은 모두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땅에 쏟아져서 다시 모을 수 없는 물과 같으며(삼하14:14),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으며(창3:19, 20), 인생은 한잔 그림자요, 하나의 숨결, 허무일 따름(욥14:1~12)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김정우, 1992. 11월호 : 50~51). 구약에서는 죽음을 죄악의 대가이며, 현실적인 형태로 하나의 저주요, 재난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지향할 의무를 포함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기 생명을 이해하지 않고, 신뢰와 감사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성취시키려한 결과로서 죽음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 죽음은 오로지 두려움과 절망적인 공포의 대상이다.

셋째, 구약성서에서 죽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된 이상적인 죽음은 노년기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죽음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죽음이다(창25:29).

이런 죽음은 성취된 인간의 마무리로서 누구나 죽어야 할 죽음이지 특정한 인간의 죽음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삭과 다윗과 욥도 만족한 죽음을 죽었으며 그들의 죽음은 음울한 결말이 아닌 평화로운 성취였다. 즉 고령과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와 같이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성취일 수 있으며 풍성한 축복의 삶에 대한 보상이었다.

넷째, 구약성서 안에는 죽고 난 뒤에도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확신이 지혜서에서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하나님과 친교가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사상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죽

음을 초극하는 희망이 구약성서문학의 후기 단계에 속하는 묵시문학에 이르러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단12:1~2).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명의 유한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 죽음은 누구나 겪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과 축복으로서의 죽음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죽음에 대하여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Herbert Vorgrimler, 1992, 38~39).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자연적인 경계선이고, 생명의 유한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므로, 인간이 자기의 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야훼께 향해야 하는데, 이는 야훼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다(시36:9~10). 그러므로 인간이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의 교훈을 통해서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도록 노력해야 했다.

② 신약성서에 나타난 죽음이해

신약성경에서 죽음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 짓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인간 생명 속에 들어온 비본래적인 것이기에 죄가 정복되어야 하듯 죽음 또한 마지막에 멸망 받아야 할 원수이다(롬5:13, 6:23, 고전15:22, 26, 55)40).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왔다(롬5:12, 고전15:21).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고(고전15:22),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롬5:14).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단지 죽음의 왕궁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죽음 그 자체를 이기셨다. 이때부터 인류에게 죽음은 그 뜻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이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 진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인간은 어떤 자의적인 노력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으며 율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율법은 인간을 사망으로 몰아간다고 말하였다(롬7:9, 갈3:10,11, 3:20).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

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형벌적 죽음인 인간의 죽음과는 달리 형벌을 도말하는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였다(롬5:9, 고전1:24~25).

예수의 죽음은 속죄적인 죽음인 동시에 대리적인 죽음이다. 그리스도는 무죄하지만 죄 있는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5:13). 예수는 새로운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의 죽음 안에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고후 5:14).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역사의 마지막에 당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인간을 대신하여 미리 앞당겨 당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연적인 죽음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전15:55, 살전 4:13~18). 즉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전히 죽게 되지만 죽음에서 해방된 것이다(황성규, 1982.4월호: 77).

이러한 사유는 바울에게서는 로마서 6:3-8과 골로새서 2:12~13, 요한에게서는 요한복음 5:24과 11:25~26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부활예로의 시작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증명되었다(롬8:34).

이상을 요약하면 구약성서에서는 죽음을 인간 생명의 자연스런 정상상태로써 보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결정적 요인 때문에 인간 생명 속에 들어온 비정상 상태라고 보았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죽음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신적심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죽음은 죄의 값이며, 죽음이 찌르는 아픈 가시의 힘은 죄가 지닌 힘 때문이라고 했다(고전15:55). 따라서 “죄”가 극복되어야 할 것이 있듯이 죽음 또한 마지막으로 멸망 받아야 할 원수로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는 극복되었다.

III. 요약 및 결론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는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무교는 영혼불사관, 즉 사람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관념이 기본적으로 저변

에 깔려 있다. 인간의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은 사라지지 않고 원래의 근원인 카오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교는 고대 인도의 죽음관으로써, 기본적으로 윤회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교의 죽음관은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생사여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속세인 귀신이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이치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질서를 강조하면서 그 이치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 영혼불멸에 대해서는 그 자손이 남아 있는 한 고인의 기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는 것이므로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불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구약성서의 죽음이해는 처음에는 단순히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죽은 자들은 비록 살아생동하는 인간으로서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화(無化)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후에 의롭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운명에 관계된 신정론(Theodicy)의 관점에서 사후 생명에 대한 관심을 점차 갖게 되었으며, 신약성서에서는 죽음은 인간 생명의 자연스러운 정상상태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죄”라고 부르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 때문에 인간생명 속에 들어온 비정상 상태라고 보았으며, 이는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는 허무감과 안타까움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기념물을 만든다. 그러나 이런 태도 자체를 죄로 보는데, 그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며 유한자인 나를 궁극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유한성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그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영원한 종말이 아닌 인간 삶의 완성이며 결실이고 보다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이며, 삶에 있어서 마지막 성장의 단계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큰 변화의 성숙을 가능케 하는 단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호스피스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기독교의 죽음관과 무관하지 않다. 즉,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소망과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가정호, "기독교적인 죽음교육연구" 고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경재, "불교와 기독교의 죽음 이해에 대한 명상" 신학연구 제 37집 1996
 김수지, "호스피스학술지", 한국호스피스협회, 2005
 김수지, "호스피스학술지", 한국호스피스협회, 2004
 김열규, "전통적종교심성의 한 이해" 사목 1986
 김영입, "말기 암 환자 가족을 위한 영적증체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정우, "죽음의 이해" 효성카톨릭대학교 영성신학연구소, 1995
 김정우, "성경에 나타난 죽음", 목회와 신학, 1992. 11월호,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노유자 외, "호스피스와 죽음" 서울: 현문사, 1994
 문중현, "임종자와 유가족을 위한 목회적 돌봄", 목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노권, "죽음이해와 상담", 세종문화사, 1999
 배영기, "죽음의 세계", 교문사, 1992
 안춘옥, "죽음에의 대비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현대 사상사, 1978
 이상렬, "죽음의 위기와 유족들을 위한 교역", 장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원영, "한국인의 죽음이해 연구", 강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정숙, "죽음과 임종에 관한 개념적 이해와 그에 따

르는 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논총)37집, 1980

전재규, "치유와 건강",보문출판사, 2000
 정진홍, "죽음·종교·문화", 기독교 사상, 1992.4월호
 최운식, "옛 이야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삶과 죽음" 한울, 1997
 황성규, "바울의 죽음이해", 기독교사상, 1982.4월호
 황필호, "죽음에 대한 서양철학의 네가지 접근과 한국인의 접근"(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창, 1990
 Herbert Vorgrimler, "죽음: 오늘의 그리스도적 죽음 이해" 심상태역, 성 바오로출판사, 1992
 Becker. Ernest(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 Free Press
 Kastenbaum, Robert(2000). The Psychology of Death. Lendon : Free Association

Abstract

The Hospice with Religious Understanding of Death

Min Sun Shin* · Mun Su Kim**

There are various understandings how to define death. In the context of medicine, death is defined as the irreversible change of the tissue according to the cessation of circulation and respiration. According to the psychologists, a person need to accept the finiteness as a human being and remain conscious that the death is not avoidable. And they say if a person doesn't regard death as unavoidable reality of life he or she will not confront the humanistic death and after all will die like animals. In philosophy, death is viewed as an unwelcome reality in the end of the journey of life. Sociologists usually understand that the society is

* Sam Anyang Hospital / Chaplain

** Bethel Church / Pastor

the organization composed with living persons and human beings which construct and transmit the cultur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etween the both ends of life and death. In society, the generation is changed, maintained, and developed through the phenomenon of death. Although death of human being is natural event in society, the death of a specific person brings a sense of loss, crisis, and anxiety to the communities like family, regional society, nation, and the world. In this context, death is not confined to personal dimension and it can be regarded as a social problem.

It is valuable to summarize the religious perspectives on the meaning of death for the better hospice care. In shamanism, there are basic idea that although the flesh of human being disappears, soul never die. If human dies, the flesh of human being disappears but soul never disappear and come back to the origin of soul as it is called chaos. So in shamanism, it is said that shaman can solve the mortified feeling, restore the broken harmony, send the soul to comfortable space- the origin, and guarantee the blessing of descendents. Buddhists regard the death as an essential component through the cycles of life. Through this cycle, human being exits as an endlessly transmigrating being and the death is just a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us. In Confucianism, the view on the death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Yin and Yang" and "Five elements". In Buddhist tradition, many believers said the philosophy of "Death is the same as life". Unlike usual thoughts that a god governs "life and death" and "fortune and misfortune", Confucianists deny the governance of a god and emphasize the natural orders in which every phenomenon in the world mov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Confucianists understand the death as a natural order with this principle. In Confucianists' belief, the essence of human being remains in their own descendent's lives after the death of ancestor, so in

Confucianism there is no concept of immortality of the soul.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death has been defined generally as the separation of the immortal soul from the mortal body. In the earlier days of Old Testament, the death is regarded as a disappearance of just a flesh and human never disappear and always live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Later days in Old Testament, we can find the growing concern for the life after the death because of the entrance of the theodicy. In the New Testament, the death is not regarded as the normal process of the human life and regarded as the abnormal status in which death come to human because of sin as a decisive factor and it should be conquered.

In fact, the most of us afraid death because not of the fear of death itself but of the sense of the emptiness and regrets. So many people often make the monument hoping to live forever. But Christian usually regard this behavior as a sinful act because human being usually think themselves as a master of their life and attempt to become immortal in this kind of trial mortal. But if we live with God, we cannot confront such a condition because we aware limits as a mortal human being and entrust everything on Him and want to live according to His guidance. Therefore, in the Christian tradition, the death is regarded as accomplishment of life, fruits of life, invitation to the eternal life, and the last stage of human growth. For human being, the death is the great step of maturation as a human in the final stage of life.

Key Words : Hospice, Religion, Death